



도내 작고 서양화가 재조명

‘끝나지 않은 삶: 영원의 기록’ 익산 W 미술관서 특별기획전... 오늘부터 8월 19일까지



익산시는 W 미술관에서 전북지역의 작고 작가들을 재조명하기 위한 기획전 ‘끝나지 않은 삶: 영원의 기록’을 진행한다. 29일 밝혔다.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지역 미술계를 돌아볼 때 예술적 가치를 지닌 작가들 중 익산에 연고가 있으면서 전북 서양화단의 정착과 발전에 기여한 작가들의 작품으로 이뤄진다.

전시작품으로는 소병호(蘇秉鎬 1931~1988), 장 령(張玲, 1937~2014), 최 웅(崔雄,

1947~2003), 허반영(河畔影, 1918~2015), 하 실(河實 1941~2012) 5인의 작품 총 25점을 선보인다.

향토성 짙은 리얼리티를 담고있는 소병호, 과감한 붓터치와 군더더기 없는 묘사가 특징인 장령, 백제 서동과 신화·무왕과 무왕비의 표준영정 지정작가로 작품을 남긴 최웅, 동양의 피카소라 불리는 허반영, 참새를 소재로 심도 있는 문화 활동을 전개한 하실 작가 총 5인의 작고작가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이다.

전시는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개막 전시가 시작되는 6월 30일 금요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신주연 W 미술관장은 “익산에 연고를 가지고 활동했던 작가들의 회화적 기록을 전시함으로써 작가의 삶을 기리고자 한다”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겨진 작고작가들의 예술적 발자취를 마주하며 따라 거닐어 보는 전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기자

진안 인삼재배 문화 무형유산적 가치 발굴

군, 농업기술센터서 학술대회
방향·전승방안 제시 등 토론
검토 거쳐 도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

진안군은 29일 군 농업기술센터 3층에서 ‘진안 인삼재배 문화의 무형유산적 가치 발굴’이라는 주제로 토론회 및 진안군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무형문화연구원 주관한 이번 학술대회는 진안인삼 재배의 역사성과 전통지식 및 차별화 방안 등 4개의 발표 토론과 발표자, 토론자 전원이 참석하는 종합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진안 인삼재배 문화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승 방안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열띤 토론을 벌여 청중들을 관심을 모았다.

진안군은 이번 학술대회 결과와 더불어 구체적인 검토 과정을 통해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진안군은 29일 군 농업기술센터 3층에서 ‘진안 인삼재배 문화의 무형유산적 가치 발굴’이라는 주제로 토론회 및 진안군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학술대회는 진안 인삼재배 문화가 단순한 농업 재배방식을 넘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진안군 전역에서 전승되고 있고 우리 후손들이 지켜 나아가야 할 문화재

로서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그 가치를 전승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기자

도내 문화관광 정보 ‘한눈에’

전북문화관광재단, 온라인 플랫폼 ‘문화관광 달력’ 포털 공개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29일 문화관광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전라북도 문화관광 달력’ 포털을 공개했다.

이날 재단에 따르면 문화관광 달력은 도내에서 열리는 다양한 △공연 △전시 △교육/체험, △축제/행사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전라북도의 매력적인 문화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 지역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작했다.

관련 행사는 재단 홈페이지(www.jct.or.kr)에서 달력의 형태로 △시·군별, △장르별, △시·군 및 장르별 등 원하는 콘텐츠를 한 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라북도 문화관광 달력’ 포털 공개는 전라북도 문화관광 정보 아카이빙 협력체계 구축의 시발점 역할을 하게 된다.

향후 시군 지자체,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문화관광 정보 연계를



강화해 문화관광 정보 플랫폼 구축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관광 달력을 통해 정보를 얻고 싶은 도민과 관광객들은 재단 홈페이지(www.jc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전라북도 문화관광 달력은 도내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 관광업 종사자들의 홍보와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라북도의 즐겁고 다채로운 문화관광 행사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